

화순전남대병원 '난치성 혈액암' 치료 길 열었다

국내 최초 '다발골수종'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식약처 임상연구 승인... 백신산업특구 첫 성과

화순전남대병원이 국내에서 최초로 항암 면역치료제를 개발, 난치성 혈액암인 '다발골수종' 치료의 길을 열었다.

특히 이번 성과는 화순 백신특구 내에 구축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첫번째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원장직무대행 정신)과 (주)박셀바이오(대표이사 이재중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소장)는 국내 최초로 환자 맞춤형 항암 면역세포치료제를 공동개발했다. (주)박셀바이오는 화순전남대병원을 모태로 2010년 설립된 바이오벤처기업으로서, 차세대 항암백신을 연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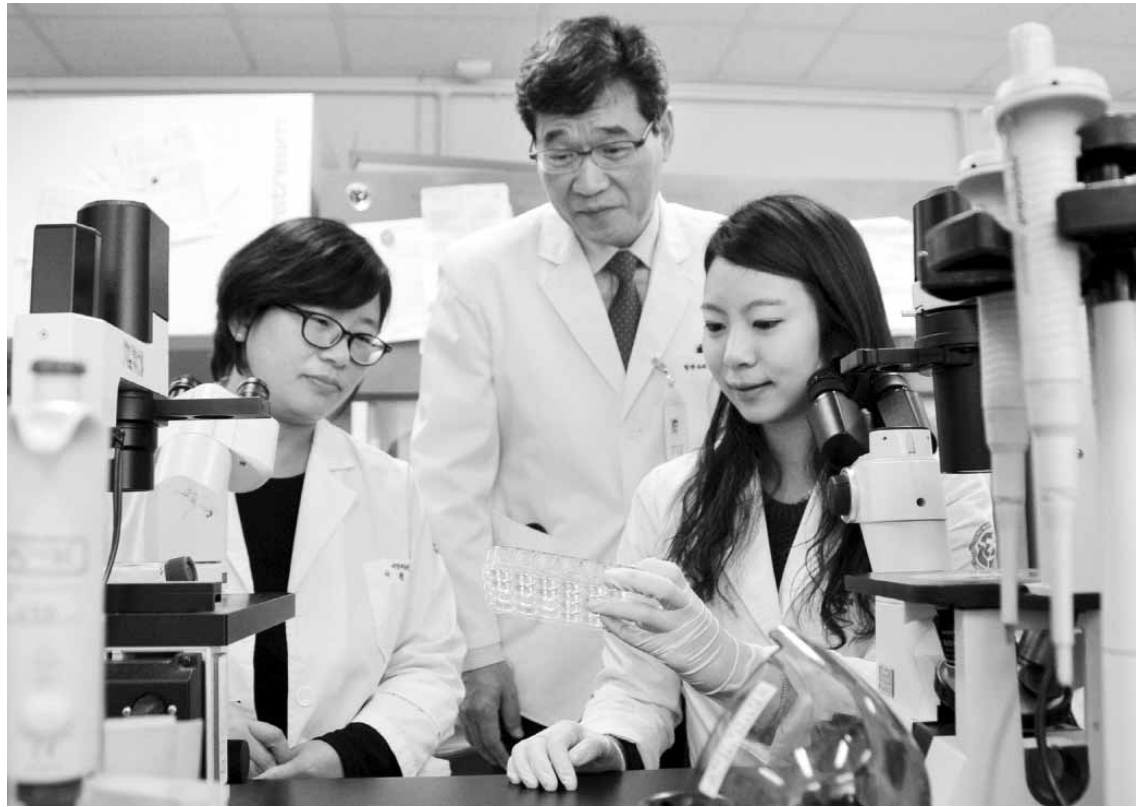
양 기관은 최근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년간 연구를 통해 항암면역치료제인 '수지상세포(Vax-DC/MM)'를 개발, 임상 연구에 진입한다"고 발표했다.

동물 등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시험에서 별다른 부작용없이 강력한

항암효과를 보여 향후 2년간 시험자 모집을 통해 본격적인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물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임상연구를 승인했다.

다발골수종이란 체내의 뼈를 녹이거나 약하게 만들고 백혈구·혈소판·적혈구를 줄여 빈혈, 출혈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혈액암이다.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며, 재발 가능성도 매우 높다. 면역체계 이상이나 화학물질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병한다. 최근 20년 동안 10배 정도의 발생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치료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과정에서 기초분야는 화순전남대병원 암면역치료연구센터와 전남대 암면역치료특성화사업단, 비임상분야는 (주)박셀바이오, 임상연구는 화순전남대병원, 임상연구시설투자는 (제)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의약품 제조 운영지원은 전남생물의약품연구원 등에서 각각 분담, 협력중이다.



화순전남대병원 이재중 의생명연구소장(가운데)이 항암 면역세포치료제에 대해 연구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번 연구성과를 계기로 지난 2년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서 전국 우수특구로 선정된 화순백신산업특구가 한층 활력을 띠 것으로 보인다.

병원 내 아시아 유일의 독일 프

라운호퍼IZI(세포치료 및 면역학) 공동연구소를 비롯해 탄탄한 연구역량의 시너지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신 원장직무대행은 "난치병인 다발골수종을 치료하는 중요한 계

기를 마련,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게 돼 기쁘다"며 "암면역치료제 개발은 세계적인 과금효과는 물론 부가가치가 엄청난 미래성장동력이어서 더욱 의미깊다"고 밝혔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취약계층 무료독감예방접종 내년부터 가까운 병원서 맞으세요

전국 첫 동네의원 민간위탁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독감예방접종 업무를 소홀히해 일부 시민이 무료접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5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가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 업무를 동네의원 중심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7일 "각 자치구의 집단접종에 따른 65세 이상 시민의 민원 발생과 보건소의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동네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위탁 전환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위탁이 시행되면 무료 접종 대상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원하는 날에 독감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지정된 특정 장소에서 특정일에만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시는 다만, 각종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이 최소 1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광주시의사회 등과 협조해 무료 독감예방접종 등과의 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집단 무료독감접종을 시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취약계층인 노인 복지만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 목표에 따라 재정 부담은 있지만(시민편의가 보장되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대구 자원봉사자, 내년 5·18행사 돕는다

'광주-대구 자원봉사 달빛동맹 협약' 체결

대구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내년 5·18 민중항쟁 주간에 행사를 돕기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자원봉사자 대표 40여 명은 지난 25일 대구시를 방문해 '광주-대구 자원봉사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자원봉사센터와 대구시자원봉사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매년 방문교류와 자원봉사 공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제34주년을 맞이하는 내

년 5·18주에는 대구시 자원봉사자들이 광주를 방문해 영·호남 화합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인형순 광주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자원봉사 달빛동맹 협약을 통해 영호남 화합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동맹은 대구의 몇 명칭인 달구비와 광주 빛고을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을 통해 협력·교류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안에 생물테러 전문연구시설 건립

전남보건환경연, 운영허가 취득... 고위험병원체 진단

전남 생물테러 등에 대비, 고위험 병원체를 확인 진단할 수 있는 전문 연구 시설이 무안군 삼향읍에 들어섰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 "고위험 병원체의 확인, 진단 실험실인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을 최근 준공,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12억5000만원이 투입된 이 연구시설은 지상 1층, 전체면적 284㎡ 규모로 탄저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바이러스, 급성호흡기증후군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신·변종 병원체를 검사하는 특수밀폐 연구시설이다.

실험실 내부에는 세균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3중의 고순도 필터가 설치되며 공기 유출입 방지, 음압시스템 등을 갖췄다. 고위험병원체를 안전하게 실험실 내부로 유입하고 멸균 후 외부 배출할 수 있는 특수설비도 설치됐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은 취급 미생물의 위험군(危險群)에 따라 1~4등급으로 구성되며 이곳은 3등급 시설이다. 등급이 높을수록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뜻이며 전남지역에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시설과 화순 생물안전 2등급 시설이 설치돼 있다. 최고 등급인 4등급 시설은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구축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하수처리장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시, 서부발전 등과 MOU... 2016년까지 2300억 투자

9만가구에 친환경전력·1만2000가구에 난방열 공급

광주시가 하수처리장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로 조성해 9만 가구에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고, 1만2000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하기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한국서부발전, 포스코에너지, 해양도시가스, 탐인프라솔라라는 2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광주시는 사업부지 제공과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한국서부발전 등 4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광주 제1, 2하수처리장의

시설물 상부와 유휴부지에 2300억원 투자, 40MW급 연료전지 발전소와 7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4년 태양광 발전소가 우선 준공되고, 2016년까지 연료전지 발전소가 단계적으로 준공된다.

두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323GWh의 발전량 확보로 광주시 전체 56만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9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1년 광주시 전력 사용량 8천47GWh의 4.2%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연료전지 발전소에서는 연

간 10만Gcal의 열을 함께 생산해 1만 2000여 가구에 온수 등을 공급하게 된다.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연간 5만2000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데, 이는 30년생 소나무 480만 그루를 심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양이다.

광주시는 임대료 36억원 등 세외수입을 얻고 발전소 건설기간에는 연인원 1만여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환경시설과 에너지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전례 없는 대규모 에너지단지사업으로 연료전지, 태양광, 바이오 열원 이용 등 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선진도시 조성사업의 큰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부, 문화융성 위해 인문학 분야 지원 강화

정부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 인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위원장 김동호)는 25일 청와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8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8대 과제는 ▲인문정신의 가치정립과 확산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 ▲생활속 문화 확산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예술진흥 선순환 생태계 형성 ▲문화와 IT기술의 융합 ▲한류 등 국내외 문화가치 확산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 지정 '아리랑'의 국민통합 구심점화 등이다.

융성위는 특히 문화 참여로 행복한

인상을 만드는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매일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고궁·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과 전국 문화시설 작은 콘서트 개최 및 야간 개방 확대, 공연 및 영화 특별할인 등 생활 속 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구촌 고통 문제 대응과 관련한 문화의 가치와 역할의 조명을 위해 '세계문화정상회의(World Culture Summit)'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으로 저도 세계에 우리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꾸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골짜기,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 010-2475-0933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 1.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만 80세 이하의 성인 남녀로
- 고혈압, 고지혈증 동반 질환자로 고혈압 약물,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
- 또는 고혈압, 고지혈증 약물 미복용시 혈압(수축기 혈압/이완기 혈압)이 130mmHg / 80mmHg 이상에서 180mmHg / 110mmHg 미만, LDL-콜레스테롤 100mg/dl 이상, 중성지방 400mg/dl 미만인 분
- 또는 그 외 전료를 통해 기타 조건이 만족되시는 분
- 2. 참여에 따른 제공사항**
- 혈액 및 뇨검사 / 신체검사 / 심전도 검사 / 24시간 혈압 검사
- 임상시험용약물 제공
- 진료비 및 검사비 제공 / 정규 방문시 소정의 교통비 지급
- 3. 참여 기간 및 방문횟수**
선별검사로부터 임상시험 종료시까지 총 14주이며, 이 기간 동안 총 7회 병원 방문 (경우에 따라 참여 기간 및 방문 횟수 변경됨).
- 4. 연구기관** : 국내 주요 종합병원
- 5. 연락처** : 본 임상시험에 참여 의사가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요.
상담원(콜센터) 연락처 : 070-4495-1096